

## 영산강 프로젝트 29일 첫 삽

34개 사업 8조 투입…하도 준설·생태공원 조성 등 본격화

### 나주에서 기공식

영산강 뱃길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영산강 프로젝트'가 오는 29일 나주 영산포에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3면>

오는 2015년까지 하도준설을 비롯 34개 사업에 모두 8조5천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산강 프로젝트는 전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남도와 예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9일 나주 영산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나주지구 영산강 생태하천 정비사업' 기공식이 열린다.

나주대교와 영산대교 사이 영산강 고수부지 6km 구간에 조깅코스와 자전거 도로, 운동시설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영산강 일부 구간을 준설하는 이번 공사는 사실상 영산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사업인 셈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 산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6일 영산강을 현지 답사하고 영산강 하구인에서 담양까지 영산강 전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국토해양부 예산 345억원, 환경부 예산 1천 42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38억원 등 국비 1천81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남도는 1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봉담~영산포 구간 22km의 하도 준설과 천변저류지 4곳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285억원을 확보했다. 또 영산강변으로 조성사업에 60억원, 2급 수 이상 깨끗한 영산강 정화사업에 1천42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고대문화권특정지역 개발사업에도 38억원이 배정됐다.

영산강 배수갑문과 통선문 확장사업,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보성·임



석유 저장 동굴 세계 최대 규모인 여수 석유비축기지 지하동굴 저장고, 1천900만 배럴의 석유 저장이 가능한 추가 비축기지가 착공 11년만인 23일 완공됨에 따라 여수기지 전체의 저장용량은 4천750만 배럴로 늘었으며, 국내 소비량 23일분의 비축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 여수 석유비축기지 확장 준공

### 5천만 배럴 저장… 세계 최대

성간 철도노선 변경, 영산호·영암호 연락수로 확장 등의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2단계 사업으로 2012년까지 영산강 훨단 교량 개수, 영산강변 전원마을 조성 등 사업을 펼친 뒤 3단계로 2015년까지 영산강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산강 프로젝트는 환경친화적으로 뱃길을 복원하고, 수질개선 및 치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명품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산강 배수갑문과 통선문 확장사업,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보성·임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1천900만 배럴의 석유를 더 비축할 수 있는 추가 설비가 착공 11년만인 23일 완공됐다. 기존 비축기지를 더하면 저장용량이 5천만 배럴에 육박해 단일 비축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1997년 공사에 들어간 추가 비축기지는 여수시 낙포동 일대 130만㎡ 부지에 2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여수 비축기지는 1999년 완공된 지하동굴 저장방식의 기존 설비에 3천 75만 배럴의 저장이 가능하며 이번에 준공된 추가기지는 지상탱크로 250만 배럴, 지하동굴에 1천650만 배럴 등 모두 1천900만 배럴의 저장이 가능하다. 두 기지를 합한 저장용량은 모두 4천975만 배럴로, 거제기지(4천

750만 배럴)보다 크다.

기지의 지하동굴은 높이가 아파트 12층 높이인 30m, 폭 18m, 동굴 길이는 14km로, 장충체육관의 100배 규모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굴 내에 최첨단 원유 가스 배출 체어설비를 구축했다.

여수 석유비축기지에는 국내 석유 소비량의 23일분(2007년 기준, 218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한번에 실어나르려면 25t 트럭으로 27만대 가량이 필요하다.

석유공사는 여수기지를 국제 공동 비축사업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석유거래 중심축인 '오일허브'의 주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남해안, 동북아 새 경제 주축으로"

### 전남도·부산·경남도 공동발전 계획

### 4대 목표 설정… 어제 부산서 보고회

전남도와 부산,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 종합발전계획의 밀그림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 등 3개 시·도와 국토연 구원은 2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중간 보고회를 갖고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 1차 보고회는 24일 전남도

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남해안권의 비전을 '동북아의 선(Sun)벨트, 행복한(SMILE) 남해안'으로 잡고,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남해안, 찾아오는 남해안, 살고 싶은 남해안, 소통하는 남해안'이라는 4대 목표를 설정했다.

4대 목표의 실현 전략으로 ▲자연환경 보전 ▲제조업 혁신역량 강화 ▲관광·휴양거점 구축 ▲항만 물류산업 육성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6개 부문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부문에서는

항만·물류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해운과 항공, 철도, 도로 등이 융합된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관문도시를 구축하고, 항만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부문에는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제조업 및 바이오 등 생명과학기술을 융합하기로 했다.

남해안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각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완비하고, 남해안을 가로지르는 저탄소형 교통망 구축도 검토기로 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내년 4월 2차 보고회, 7월 선도사업계획 초안작성, 9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10월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완료된다.

/총행기자 redplane@

## 호남예술제

### 음악부 지정곡 발표 16편

2009년 4월 25일 ~ 6월 30일

전국 최고의 춤대를 배울 예술제로 자리 잡은 제54회 전국대학 호남예술제가 2009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화생교육문화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제54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격 : 국내 저주·한국·초·중·고등학생

▶ 경연기간 : 2009년 4월 25일(목) ~ 6월 30일(화)

▶ 부 문 :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논술

▶ 신청기간 : 4월 2일(목) ~ 4월 9일(목) · 일자별 접수

▶ 자세한 일정은 2009년 3월 초에 발표

(<http://www.kwangju.cc.kr> 참조, 문의: 062-220-0541)

▶ 시상

· 우수학과 우수지도교사 시상

· 개인·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활동·팀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최고상, 대상 : 조정의 장학금 지급

▶ 주최 : 광주일보사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2009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14·15면

## 서남권이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제54회 전국대학 호남예술제

제54회 호남예술제에 출전하세요!

제54회 호남예술제에